

일. 전쟁(싸움):

❖ 예배.

- H 하늘의 시민들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(계 4:11; 욥 38:6-7).
- 사탄은 "짐승들"에게 전 세계가 예배할 형상을 "만들" 능력을 주고서 그것들을 이용해 자신이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(계 13:2, 4, 14-15).
- 이런 때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더욱 뜨거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. "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"(계 14:12)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에 그분께 예배 드립니다.

❖ 배척당함.

-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(엡 6:12). 우리는 만질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영적 무기를 사용합니다(고후 10:3-5). 그러나 적은 물리적인 무기들을 서슴지 않고 사용합니다.
- 사탄이 퍼붓는 엄청난 공격으로 "화(어려움)"를 당하는 믿는 사람들의 희생은 결코 허투루 돌아가지 않습니다(계 12:12). 사탄의 무기는 제한이 없습니다.
 - 1) 사탄은 우리의 성향을 이용해서 시험에 빠뜨립니다(약 1:14).
 - 2) 그는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시킵니다(고후 4:3-4).
 - 3) 우리와 친한 사람들을 이용합니다(마 10:34-36)
 - 4)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합니다(행 5:40)
 - 5) 사탄은 끔찍한 폭력을 사용합니다(요 16:2)
- 사탄은 이런 방법들을 역사속에 사용했으며, 마지막 때에도 그럴 것입니다: 속임수와 교활함(계 13:13-14); 경제적 제재(계 13:16-17); 그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사형하라는 명령을 내림(계 13:15).

이. 적(원수):

❖ 용의 보좌.

- 성경에서 용은 사탄을 상징하고(계 12:9),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짐승은 다니엘 7 장의 넷째 짐승을 말합니다.
- 요한계시록 13 장은 12 장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. 이 사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일어납니다(계 12:3-5). 첫 번째 구절은 1,260 년 동안 더욱 거세진 교회를 향한 핍박을 말씀하셨고 나머지는 "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선"(계 12:17)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.
- 바바리안 부족이 로마를 침범한 후로 로마제국은 분열되었습니다. 서서히 로마 교회가 제국의 실권을 잡았고, 로마 교회는 참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(계 13:4-8).

❖ 회복된 상처.

- 수 백년에 걸쳐 "포로들을 사로잡고" "칼로 죽이는"(계 13:10) 권세를 남용하던 로마 교회는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(왼쪽 그림에서 보이는 피우스 6 세) "큰 상처를 입었습니다"(계 13:3).
- 로마 교황들은 1870 년까지 세력을 유지했으나 이탈리아 왕국이 건국되면서 마침내 자신들의 영토를 모두 잃었습니다. 로마 교회는 다시는 이전의 영광을 되 찾지 못할 것 같이 보였습니다.
- (그러나) 1929 년에 바티칸 시국은 독립 국가로 인정받았다. 바로 그 상처가 낫기 시작한 것입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?
-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면서 지구에 닥친 위기들을 해결해 나갈 지도자를 뽑게 될 것입니다. 교황청이 제시하는 해결책 중에는 말할 것도 없이 가족, 민족, 국가들을 하나로 뭉치기 위한 장치인 일요일을 휴식의 날로 선포하는 법이 포함될 것입니다.

❖ 어린양과 용.

- 첫 번째 짐승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부패하면서 생겨났습니다. 첫째 짐승이 상처를 입었을 때, 사탄은 그 짐승을 치료하고 그것을 대신할 "거짓 선지자"를 구했습니다(계 13:11; 16:13). 그리고 다시 한번 사탄은 기독교의 순수한 원칙에서 시작된 나라, 북미(미국)에서 그가 이용할 세력을 찾았습니다.
- 사탄은 어린양이신 예수님을 흉내 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. 왕도 없고 왕관도 없는 이 나라는 공화주의 국가였으며, 시민(국가)과 종교(교회)의 두 권력(뿔)의 분리를 그 원칙으로 세워졌습니다.

- 세계 최초의 초 강국이 된 이 나라는 이미 용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 곧 이 나라는 교황권을 지지하면서 “짐승의 형상”(계 13:12-14)을 만들 종교 법을 제정할 것입니다.